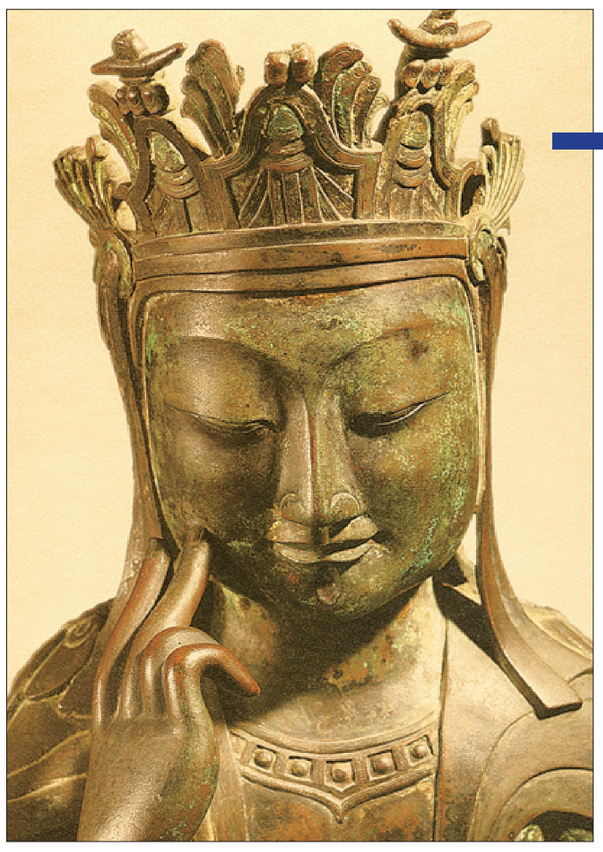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⑬ 보관의 비밀–물방울과 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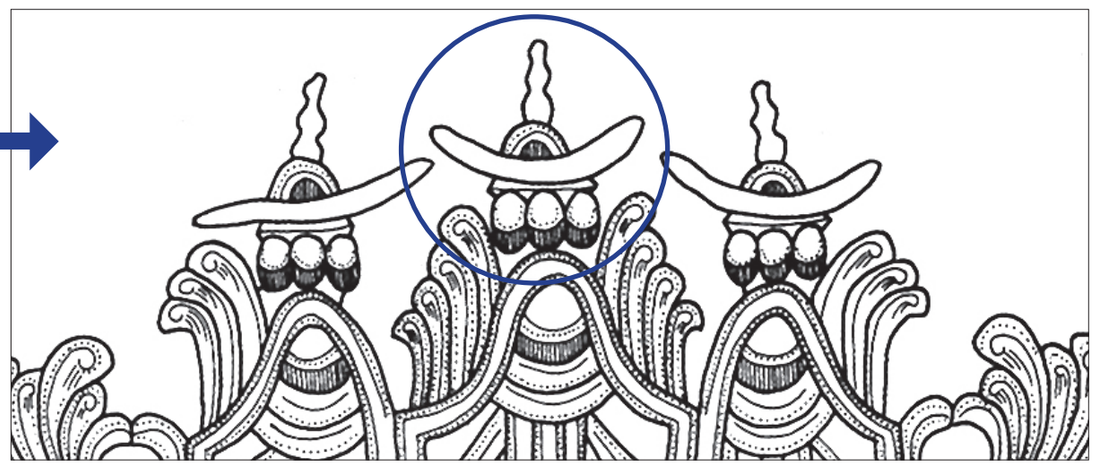
▶한줄 요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점의 걸작 반가사유상, 국보 78호와 국보 83호의 가장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 중 하나가 보관(寶冠)이다. 78호의 보관은 모양새가 매우 특이하다. 이 보관은 창조의 원천을 의미하는 '빈두 차크라'를 형상화 했다.

반가사유상 보관, '빈두 차크라'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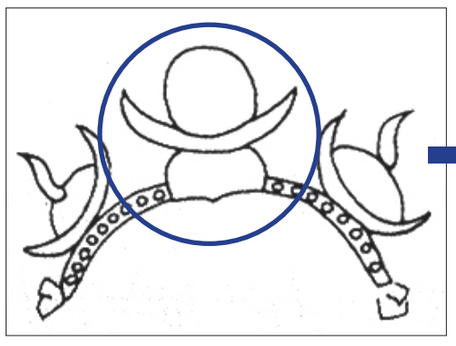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반가사유상'이다.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를 풍미했다. 약 100년 동안(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남아있는 다양한 삼국시대 조각상 중, 조형적으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이룬 것으로 보아, 당시 종교 미술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이 왕권 중심의 국가 체제를 정립하여 약진할 당시, 그 한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존상이, 정작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명칭에서부터 속 시원히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 연재에서 반가사유상의 형식적 특징을 통해 과연 이 놀라운 작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도판① 반가사유상(국보 78호)의 두상과 보관.



도판② 반가사유상 보관의 도해.



도판③ 사산 왕조의 왕관.



도판④ 빈두 차크라.

韓 대표하는 문화유산 '반가사유상'
국보 78, 83호 사유상 특징 '보관'
78호 보관 '빈두 차크라' 표현 추정
'창조의 샘' 의미… 만물 회귀 원천

'반가부좌'와 명칭

아름다운 청년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깊은 삼매에 빠져있다.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번져있다. 고요한 삼매 속 법열(法悅)을 깊이 즐기고 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양 갈래로 땋아 세 갈래 둥글게 묶었다. 가는 팔과 긴 허리, 뒤태를 보면 그의 앳되고 가냘픈 면모가 두드러진다.

먼저 '반가사유상'이라는 명칭부터 살펴보자. 반가사유상이란 '반가부좌(半跏趺坐)의 자세로 사유(思惟)하고 있는 모습의 존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반가부좌는 한쪽 다리만 접었다는 뜻이다. 양쪽 다리를 다 접지 않고, 반쪽만 접었다는 말이다. 반가부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오른 무릎을 접어 올려 왼쪽 허벅다리에 얹고 왼쪽 발이 오른 무릎 밑으로 가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오른 다리를 접어 오른 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얹고, 또 왼 다리를 접어 오른 허벅다리에 얹어, 양쪽 발의 발바닥이 모두 위를 향해 보이도록 앉는 것을 결가부좌(結跏趺坐)라고 한다.

결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곧추세우는 자세는 수행할 때의 전형적인 자세이다. 그런데 양 다리를 접어 X자 형식으로 서로 교차되게 얹고 발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않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다리를 접되 서로 교차하지는 않고 그냥 바닥에 놓는 것을 반가부좌라고 한다. 결가부좌를 하다가 만 형식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런데 반가부좌이건 결가부좌이건 모두 바닥에 앉는 자세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의문점은 바닥에 앉은 것을 전제로 하는 반가부좌란 용어가 '의자에 걸터앉을 때에도 해당되는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맞고 안 맞고'의 용어의 실제 타당성을 떠나 이미 사람들의 입에 '반가사유상'이라는 명칭으로 너무 널리 정착해버렸기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비록 잘못된 용어라도 일반적인 공용성을 널리 획득한 용어는, 바꾸게 되면 큰 혼란이 초래되기에 용례의 '관용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세를 굳이 앞세우기보다는, 핵심 단어만 남겨 '사유상'으로 부르거나, '태자사유상'으로 부르면 타당하겠다. 태자사유상은 중국, 일본 등 여타 나라에서도 쓰는 용어로, 고타마 싯타르타가 태자 시절에 사유하는 모습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창조의 샘–빈두 차크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점의 걸작 반가사유상,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두 반가사유상을 구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보 번호로 본 연재에서 명함)의 가장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 중 하나가 보관(寶冠)이다. 78호의 보관은 모양새가 매우 특이하다.(도판①, 도판② 보관의 도해)

가운데에는 3개의 구획으로 삼각산처럼 올라온 조형이 있고 그 위로 고사리 줄기 또는 물줄기 같은 문양이 뿜어져 올라와있다. 이러한 줄기들 위로는 초승달 또는 쟁반 모양의 조형이 있고 그 위에는 반구형의 원반이 있다. 그리고 그 원반 위로 다시 몽글몽글 에너지가 피어오른다. 이러한 문양이 크게 3개의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 뭔가 매우 복잡하고 화려한데, 계속적으로 분출하고 피어오고 움직이고 있는 형상이다. 반면, 83호는 3개의 연잎 모양의 보관으로 단순하고 정제되어 있다. 83호 보관에 대해서는 본 연재 4회차 '연화화생의 원리'에서 다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83호 보관은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에는 반원형의 곡선이 3개의 산처럼 보여 '삼산관(三山冠) 반가사유상'이라 이름 붙었다가, 후에 '연화관(蓮華觀) 반가사유상'으로 제 이름을 찾은 바 있다. 깨달음과 합일하는 순간, '머리에 피는 연꽃'에 대해서는 지난 연재 4회차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78호 보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의 삼신(三神)이사는 박산(博山, 또는 삼신산)의 형태라는 설이 있고, 또 해와 달(日月)을 형상화한 것이라 해서 '일월식삼산관(日月飾三山冠)'이라는 명칭도 있다. 하지만, 본 연재에서는 이것의 정체가 '창조의 샘'인 '빈두 차크라(bindu chakra)'의 모습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물방울과 쟁반

창조의 샘인 빈두 차크라의 모습은 물방울과 쟁반의 형태로 나타난다(도판④). 물방울과 쟁반의 빈두 차크라의 모습은 왕관의 형태로 차용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인도의 쿠샨 왕조를 거쳐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의 왕관을 비롯하여(도판③), 중국 초기불교미술 시대의 보살의 보관, 한국 삼국시대의 보살의 보관, 일본의 아스카시대 보살의 보관을 관통해 그 사례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관으로 나타나지만, 보관의 가장 윗부분에는 항상 물방울과 쟁반 모양의 빈두 차크라가 핵심 도상으로 자리한다.

빈두 차크라의 '빈두'는 산스크리트어로 '물방울' 또는 '점'이란 뜻으로, 요가의 전통에서는 미간의 점으로 칠하거나 보석을 붙이는 행위로 나타낸다. 불상에서는 미간의 백호 여의주로 표현한다.

빈두는 초월적인 지복과 환희를 나타낸다. 물방울은 비슈다 차크라(Vishuddha Chakra)로 떨어지는 불로장생의 '넥타'이다. 비슈다 차크라는 목 뒤에 있는데, 황금빛을 띠고, 열여섯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 모양이다. 이곳이 열리면 외부의 집착을 떠나 내면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

탄트라 경전에 따르면, 머리 뒤통수의 빈두 안에서 인체의 달이 생명의 물인 넥타를 분비한다고 한다. 초월적 생명수로 이는 자아가 사하스라라(제7차크라)의 신성성으로 연결될 때 흐르는 통로로 간주된다. 베다의 전통에서는 마디야, 신성의 물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로는 암브로시아라고 하여 영생의 음식, 신의 음식으로 여겨진다. 불교에서는 이 넥타를 '감로(甘露)'라고 한다.

이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쟁반에 떨어지면, 파장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 만물이 창조되는 구조이다. '빈두 비사르가'는 '방울의 떨어짐'이란 뜻으로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점을 뜻한다. '창조의 원천' 또는 '창조의 샘'으로도 불린다. 창조의 샘이 발현되는 모습은 '하현달 위의 동그란 방울'로 조형화된다. 빈두 비사르가는 만물이 나타났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궁극적 원천이다.

빈두는 제6차크라와 제7차크라 사이의 머리 뒷지점에 위치한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미간에 위치한 제6차크라가 열린다. 제6차크라인 아즈나 차크라(Ajna Chakra)는 '제3의 눈'이라고 부르며 명상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갖가지의 정신집중 상태를 지배한다. 이것이 열린 것을 조형적으로 미간 사이의 '백호 여의주'로 표현한다.

아즈나 차크라는 제1차크라에서 제5차크라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운행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켜 온 우주에 번지게 한다. 수행자들은 아즈나 차크라를 통해 신성을 자각하는 두 번째 탄생을 한다.

마지막 백회 차크라인 제7차크라인 사하스라라 차크라(Sahasrara Chakra)는 산스크리트어로 영광 · 승리 · 완성 등을 의미한다. 6개의 차크라들이 잘 운행되고 조절되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데, 성자들에게 나타나는 머리 주위의 빛(후광, 원광)은 사하스라라의 빛이다.

'빛의 왕관'은 불교미술에 있어 '광배'로 구현된다. 빛의 왕관은 제6차크라가 열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해 제7차크라가 열리면서 그 절정에 달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현장 방문 시설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80만원